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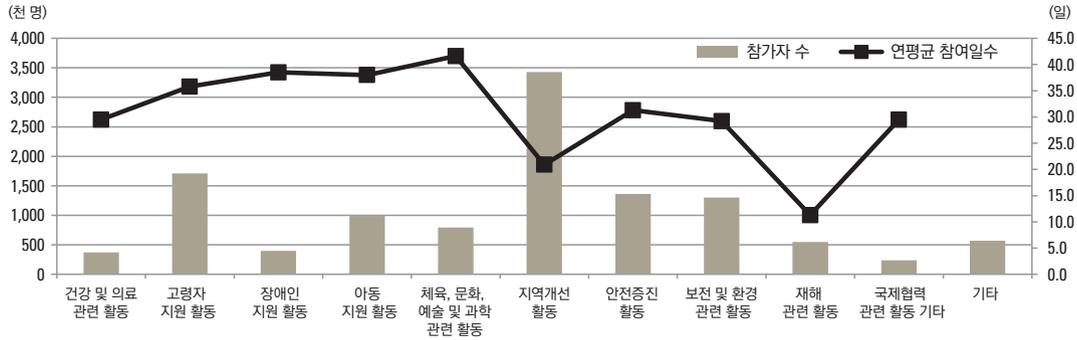
# 일본의 고령자 자원봉사: 유급 자원봉사자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Li-Mei Chen (일본 간세이가쿠인대학교 사회사업학과 교수)

일본의 고령자는 자원봉사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매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25%가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역개선 활동(340만 명)에 가장 많이 참여하였으며, 다른 고령자들을 위한 활동(170만 명), 안전증진 활동(140만 명), 환경보전 및 기타 환경 관련 활동(130만 명)이 그 뒤를 이었다(그림 1 참조). 연평균 참여일수가 가장 높은 경우는 체육, 문화, 예술 및 과학 관련 활동이었으며(41.6일), 장애인 지원 활동(38.5일), 아동 지원 활동(38일)이 뒤를 이었다. 자원봉사는 그들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일본의 고령자들은 자원봉사가 자신이 축적한 기술과 지식, 그리고 은퇴 후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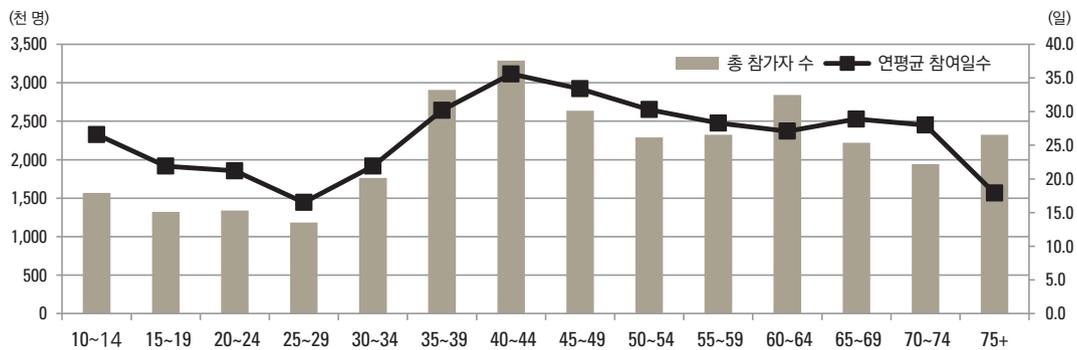
일본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다. 자원봉사자라는 용어가 일본인들에게 친숙한 단어가 된 것은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 발생 당시 전국의 많은 시민들이 구조 활동에 동참하면서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시민들의 전폭적인 호응을 접한 정부는 그러한 시민들의 이타적인 노력을 유지하기 위해 제3부문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1998년에 NPO 법으로도 알려져 있는 특정비영리법인촉진법(特定営利法人促進法)이 통과되면서 비영리단체들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었다. 2015년 6월 현재, 일본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단체는 50,260개이며(Cabinet Office, 2015), 최신 통계에 의하면(2011a) 약 430만 명, 즉, 전체 인구의 26.3%가 매년 어떠한 종류의 자원봉사에 참여하였다(그림 2 참조). 가장 최근에는 2011년 일본 서부 대지진 발생 당

[그림 1] 고령자(65세 이상) 자원봉사 참가자 수 및 연평균 참여일수



자료 : Ministry of General Affairs(2011), Shakai seikatsu kihon chosa. <http://www.stat.go.jp/data/shakai/2011/index2.htm>

[그림 2] 연령별 자원봉사 참가자 수 및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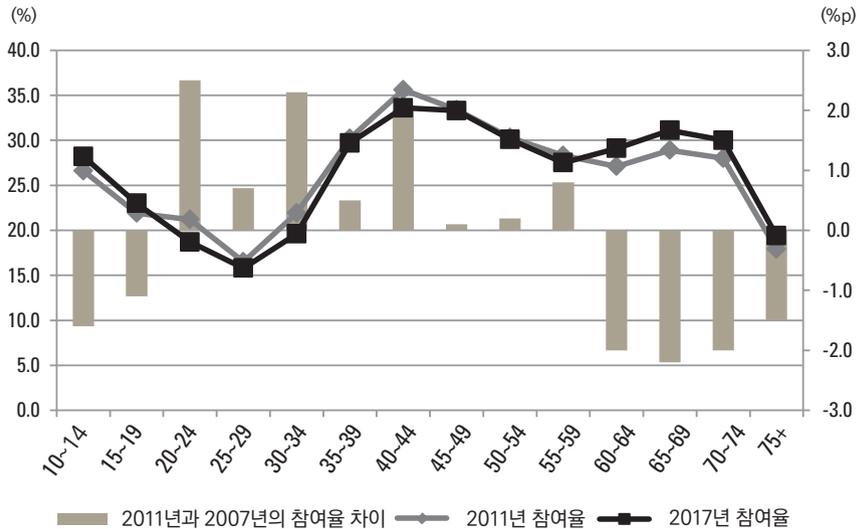


자료 : Ministry of General Affairs(2011), Shakai seikatsu kihon chosa. <http://www.stat.go.jp/data/shakai/2011/index2.htm>

시 비영리단체들이 매우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구조 활동을 벌였다. 대지진 발생 직후 처음 1년 동안, 지진 피해를 입은 3개 현에서 약 926,2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이재민들을 도왔다(Japan National Council of Social Welfare, 2012).

하지만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일본의 고령 자원봉사자 비율은 여전히 낮다.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일본 인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원봉사 참여율이 가장 높은 연령 집단은 40대이다(40~44세는 35.6%, 45~49세는 33.4%). [그림 3]에서와 같이, 2011년

[그림 3] 2007년과 2011년 연령별 자원봉사 참여율과 그 변화



자료 : Ministry of General Affairs(2007, 2011), Shakai seikatsu kihon chosa.  
<http://www.stat.go.jp/data/shakai/2011/index2.htm>  
<http://www.stat.go.jp/data/shakai/2006/>

자원봉사 참여율은 2007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저연령층의 경우(10대를 제외하고) 증가하였지만 고령층에서는 1.5~2.2%포인트 감소하였다. 고령 자원봉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기존의 연구 문헌에 의하면 세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첫째, 임금노동과 자원활동은 일본에서 상호교환적(trade-off) 관계인 것으로 보인다. Ma and Ono(2012)에 의하면, 일본에 보편화되어 있는 법정 정년 관행은 자원봉사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최근 법정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었다. 고령자고용안정법(高齢者雇用安定法) 개정에 따라, 일본 기업의 98.1%는 근로자를 65세까지 계속 고용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2014a).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고령자들은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부여되었던 퇴직 대신에 근무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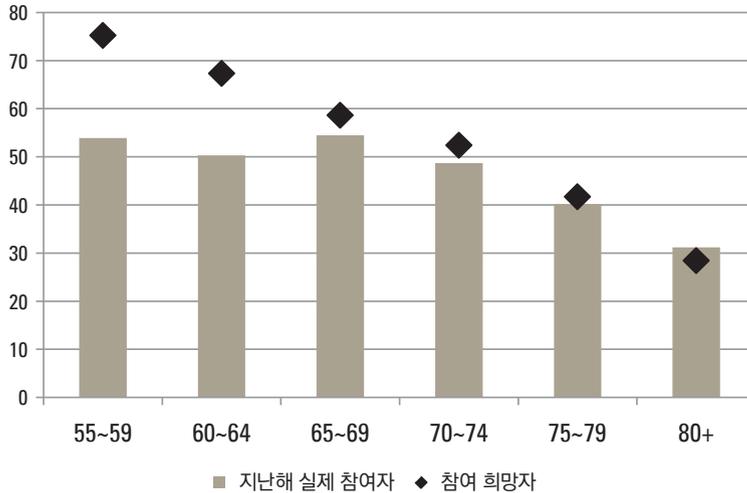
둘째, 고령자가 자원봉사에 참여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을 수도 있다. 과거 조사 결과에 의하면, 많은 고령자들이 일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희망이 선택이라기보다는 의무에 가까운 가능성이 크다. 필자의 이전 연구에서 고령자의 75% 이상이 경제적인 이유

로 일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Chen, 2010).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본의 고령자는 구직시 이전 어느 때보다도 임금을 중요시한다(Cabinet Office, 2012). 이러한 결과는 남녀와 모든 연령집단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특히 남성과 60~64세 집단에서 두드러진다. 최근 연금 수혜 개시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지면서, 베이비붐 세대(1947~1949년 출생자)와 젊은 연령대가 65세 이전에 연금을 청구하면 연금 급여가 삭감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절반 이상이 연금을 주 소득원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의 변동이나 불안은 이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위기가 될 수 있다. 현재 연금의 퇴직 전 소득대체율은 OECD 국가들 중 최저 수준으로, 이들의 연금은 넉넉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Chen, 2010).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 내에서도 저축액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모든 베이비붐 세대가 자신의 수명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충분한 금액을 저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Cabinet Office, 2013). 안타깝게도, 정부의 복지급여를 받는 고령자가 늘고 있으며, 2014년의 경우 전체 복지급여 수급 가구 중 고령자 가구가 가장 높은 비중(45.5%)을 차지하였다(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2014b).

셋째, 고령자 자원봉사의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이 있을 수 있다. [그림 4]에서 보듯이(2011b), 지역사회활동 및 자원봉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자의 비율과 실제 고령자 참여율 간에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8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집단에서 나타난다. 필자는 이전의 연구 논문에서 이러한 불균형의 발생 원인에 대해 살펴본 바 있다(Chen, 2013). 지역사회활동에 관련된 자원봉사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자원봉사가 지역적 유대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다. 많은 베이비붐 세대, 특히 남성들은 취업을 위해 이주를 해야 하는 임금근로자였고, 따라서 퇴직할 즈음에는 지역적 유대가 전혀 없고 지역의 자원봉사 기회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방법도 알지 못한다. 지역적 유대가 없는 상태에서, 남성 퇴직자들은 지역의 자원봉사에 동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첫째와 둘째 이유에 의하면, 오늘날 고령자들은 이전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렵기 때문에 자원봉사보다는 임금노동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령자가 임금노동을 통해 경제적 기여를 늘리는 것이 세금과 공적보험 납부를 통해 초고령화 사회인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호는 국가적 관점에서 볼 때도 타당하다. 더구나 근로는 고령자 개인의 독립과 신체 및 정신 건강에도 많은 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

[그림 4] 연간 연령별 지역 및 자원봉사 실제 참가자 및 희망자 비율



자료 : Cabinet Office(2011), Koreisha no keizai seikatsu ni kansuru ishiki chosa.  
<http://www8.cao.go.jp/kourei/ishiki/h23/sougou/zentai/>

고 있으며(Chen, 2010), 결과적으로 고령자의 건강 및 장기요양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자원봉사는 정부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는 고령 자원봉사자들이 재해 발생 시 구조 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잠재적인 사회복지 제공자라고 인식하고 있다. 경제성장 둔화와 함께 인구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일본은 세계 선진국들 중에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가장 높다. 노령연금, 건강보험 및 개호보험 급여와 같이 계속 늘어나는 사회보장 지출을 감당하는 일은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 상황에 처한 일본 정부는 정부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는 데 시민사회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2015년 3월, 정부는 ‘상호원조 사회(共助社会)’ 증진 방안을 위한 조사 실시 및 정책 권고를 위해 내각부특명담당대신(경제재정정책담당)이 주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였다(Council for Promotion of the Society of Mutual Assistance, 2015). 특히 초고령화 사회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데 있어 고령자와 여성이 중요한 인력으로 강조되었다.

예를 들어, 정부는 개호보험법(介護保険法) 최근 개정안에서 고령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15년 개정안에 따라 예방적 지원 대상자를 위한 가사 지원과 건강 증진

활동과 같은 예방적 돌봄서비스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었고,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종합 돌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예방적 지원 대상자들을 지원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 규모에 따라 유사한 서비스를 동일한 역량으로 제공할 여력이 없을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아무런 서비스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비영리단체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이러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고령자들, 특히 베이비붐 세대를 유인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전문가들은 유급 자원봉사 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에서 유급 자원봉사는 1980년대 초반부터 존재해왔다. 하지만 유급 자원봉사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 후생노동성(2004년 6월 18일)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유급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수당, 사례금 또는 경비를 지급받는 자원봉사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노동연구·연수기구의 조사(Japan Institute of Labor, 2004)에 따르면, 비영리단체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평균 17명이며 그중 3.34명(20%)이 유급 자원봉사자고, 4.89명(29%)은 임금근로자이며, 8.4명(49%)은 무급 자원봉사자이다. Ma and Ono(2013)에 따르면, 유급 자원봉사자의 평균 보수는 최저임금을 초과할 수 있지만 일부 비영리단체들은 의식적으로 유급 자원봉사자의 보수를 최저임금 미만으로 설정해 놓았다. 이러한 단체들에서 유급 자원봉사자들은 비정규 직원과 무급 자원봉사자의 중간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일부 단체에서는 유급 자원봉사자들의 업무 계약이 비정규 직원에 비해 명확하지 않다. 업무 태도 측면에서, 유급 자원봉사자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이타심이 더 컸으며 무급 자원봉사자의 태도와 유사했다. 하지만 임금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유급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임금근로자에 버금가는 이기적인 동기를 지닐 가능성이 더 높았다. 무급 자원봉사자에 비해 유급 자원봉사자는 직원들과 유사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러한 태도는 이기적인 동기를 가진 유급 자원봉사자에서 더 확연하게 나타났다. 요컨대 일본의 유급 자원봉사자는 분명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임금노동과 무급 자원봉사자의 중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필자는 전국적으로 조직망을 갖추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고령자 자원봉사단체 두 곳을 인터뷰했다. 하나는 일본 최초의 자원봉사단체 두 곳 중 한 곳으로 1980년대 초반에 ‘시간예탁(時間預託)’ 개념을 도입한 ‘마고코로 케어서비스(まごころケア

서비스’이며, 다른 하나는 시간예약과 유사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개념을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단체에서 도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액티브라이프클럽(日本アクティブライフクラブ)’이다.

마고코로 케어서비스는 개호보험이 법제화되기 8년 전인 1982년에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고령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던 8명의 자원봉사자에 의해가와가현 타카마츠시에서 설립되었다. 곧 다른 사람들도 이들의 자원봉사 정신을 이어받아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 서비스 네트워크의 가입자가 늘어나자, 창립자인 미치코 카네마(兼間道子)는 시간예약제도를 고안해내어 서비스를 제공한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보수를 시간적립의 형태로 지급하여 이를 나중에 자신의 장기요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회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해당 자원봉사자는 정해진 소액의 사례금을 지급받는다. 2000년 4월 개호보험이 개시되면서,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의 90%가 보험으로 충당되었고 서비스 수혜자는 마고코로에 지급하는 사례금과 같거나 적은 수준의 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마고코로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었고 전국의 여러 마고코로 센터가 네트워크에서 탈퇴하여 개호보험 인증 서비스기관이 되었다. 오늘날에는 전국에 24개의 마고코로 센터에서 개호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서비스나 추가적인 개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의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고령 여성이다.

일본액티브라이프클럽(NALC)은 1994년 4월에 오사카현 오사카시에서 케이이치 타카하타(高畑敬一)에 의해 설립되었다. 타카하타는 임금근로자로 일하다가 퇴직한 후에 자신의 은퇴 후 인생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자원봉사에 바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직장생활 동안 쌓은 다양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NALC를 설립하였다. 타카하타는 미국인들의 자원봉사 정신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1년 365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령 자원봉사자 핵심 그룹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NALC는 단체의 회원들에게 시간예약 제도를 제공한다. 하지만 NALC의 경우에는 서비스가 비회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도, 비회원이 지불한 사례금은 해당 NALC 회원 지점에 귀속되고 서비스를 제공한 NALC 회원은 ‘시간예약 계좌’에 시간으로 보수를 지급받는다.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시간은 나중에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사용하거나 자신의 배우자나 부모에게 양도할 수 있다. NALC 시스템의 장점 중 하나는, 전국적으로 125개의 지점(미국, 영국, 스위스의 3개 지점 포함)이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 구성원

이 돌봄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가족 구성원에게 시간을 양도하여 해당 지역의 지점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는 고령자를 위한 개인 돌봄과 가사 서비스 제공에 한정되지 않고, 육아, 방과후 활동, 장애인 도우미, 독거노인 방문 및 말벗 되어 주기 등 확대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네트워크에 가입하며, 자원봉사자의 평균 연령은 70대 초반이다.

필자는 위 두 단체의 회원들을 유급 자원봉사자로 분류하지만 두 단체 회원들 모두 자신들은 유급 자원봉사자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주장하였는데, 이는 현재의 사회분위기를 감안할 때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유급 자원봉사는 자원활동의 ‘진정한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비난받고 있기 때문이다. 유급 자원봉사는 표현은 자원활동의 이타적인 본래 취지를 희석한다고 인식된다. 그리고 이 단체들이 자체 활동을 유급 자원봉사로 규정한다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유급 자원봉사자에게 적용되고 있지 않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과 기타 노동법에 대응해야 한다.

2004년 11월 나가레야마 법원의 사건은 바로 유급 자원봉사의 활동이 노동인지 여부를 다루었다. 비영리단체인 나가레야마 U-I 네트(流山U-Iネット)는 고령자와 신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였는데, 조세 당국은 이 단체의 서비스를 ‘용역사업(請負業)’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요구하였다. 이 단체의 회원들은 이 단체로부터 ‘후레아이 키푸(ふれあい切符)’라고 불리는 티켓을 구입하였고, 회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금전이 아니라 티켓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졌다. 티켓당 1포인트는 100엔이며 1시간의 서비스는 8포인트에 해당했는데, 그중 6포인트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원봉사자에게, 나머지 2포인트는 단체의 관리비용으로 지급되었다. 고등법원은 이 자원활동단체가 서비스 유형, 가격 범위, 서비스 신청 및 불만 처리에 있어 세부적인 관리 지침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서비스를 ‘용역사업’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납부하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였다. 티켓은 회원들이 제공하는 특정 서비스에 대한 보수의 성격을 지녔다는 것이다. 이 판결 후에 원고 측 변호사이며 고령자 자원봉사 운동가인 츠토무 호타(堀田力)는 ‘용역사업’의 정의가 너무나 광범위하며 서비스가 단체의 회원에 의해 제공되었고 6포인트는 보수가 아니라 사례금이었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이 단체의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임직원에게 어떠한 형태의 급여를 제공하게 되면, 모든 인간의 활동을 경제적으로 해석하고 자원봉사의 이타적 성격을 빼앗는 결과가 된

다고 덧붙였다.

자원봉사자들이 제공한 서비스가 용역사업이라면, 자원봉사자들은 근로자가 된다. 즉 최저 임금법, 근로기준법과 기타 여러 노동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서비스 제공자들을 '자원봉사자'라고 보았으며 이에 노동법 적용으로 야기될 혼란은 피할 수 있었다.

오늘날 작업 환경은 이전 어느 때와도 다르다. 비전일제 고용의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 2010년 조사에 의하면(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2011), 2003년에는 43.8%였던 비전일제 고용이 49%로 증가하였다. 비전일제 고용은, 촉탁직, 계약직, 계절적 업무, 시간제 등의 다양한 형태를 띤다. 근로시간의 길이도 다양해서, 전일제의 경우 33%가 40~45시간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45~50시간(20.8%), 35~40시간(20.2%)이 그 뒤를 잇는다. 비전일제 고용의 경우, 20.9%가 35~50시간을 일하며, 그 다음으로 17.3%가 20시간 이하, 15.6%가 40~45시간을 일한다. 자원봉사는 고령자들에게 다양한 근무방식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는 자원봉사나 위탁 조부모 활동을 하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급료를 지급하는 정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호주의 경우 실업급여를 6개월 이상 수급하는 50세 미만을 다양한 자선단체와 자원활동단체에서 채용하도록 독려하는 실업자 고용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전일제 근무는 희망하지 않지만 자신의 활동에 대한 보수를 원하는 고령자의 유급 자원봉사에 대해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일본의 상황에서 이러한 외국의 선례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고령 자원봉사자들이 값싼 노동력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유급 자원봉사자의 대부분은 다른 고령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동들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조직하는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영리 자원봉사단체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 민간부문 단체인 사회복지협의회(社会福祉協議会)와 지방자치정부도 임금근로자 채용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유급 자원봉사자를 채용하고 있다(Miyamori, 2012). 이 단체들의 예산 제약을 감안하면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유급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이들이 대부분 중고등학교 교육밖에 받지 못한 고령자나 주부라는 보고도 있다. 이들의 가계소득은 임금근로자나 무급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보다 낮다(Japan Institute of Labor, 2004). 그들은 전일제로 채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유급 자원봉사자

로 고용하는 경우 임금근로자만큼 일을 시키면서도 그만큼 보호는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우려사항은 일자리의 질이다. 1974년 이후 전국실버인재센터사업협회(全国シルバー人材センター事業協会: NSHRC)는 고령자를 고용하여 지역사회에서 일하도록 하였다. 각 센터는 기업, 개별 가구 등과 계약을 통해 업무를 위탁받고 일의 내용, 횟수, 작업량을 감안하여 등록회원들에게 배분한다. 초기에는 고령 퇴직자의 '삶의 의미'를 높이기 위해 설립되었고, 지급되는 돈도 임금이 아니라 보조금이었다. 회원들은 자신의 업무 내용과 소요 시간에 따라 센터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NSHRC에 등록된 회원들은 비정기적으로 일을 하며, 지급되는 보조금도 큰 액수가 아니다. 월평균 50,000~60,000엔을 받으며(International Longevity Center Japan, 2008) 비과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계약직 근로자는 아니지만, 그들의 업무에 대한 기대는 정규 업무와 전혀 다르지 않다. NSHRC의 한 지부가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NSHRC, 2010), NSHRC에 업무 위탁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은 근무 태도(28.5%)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그 다음으로 지식/경력/기능(23.6%), 서비스와 완성품의 품질(19.4%)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는 우수한 직업윤리, 탄탄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질의 제품(서비스)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임금근로자와는 달리, 유급 자원봉사자가 동일한 품질의 결과를 일관되게 제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운이 좋다면 유급 자원봉사자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수도 있고 강한 이타심으로 임금근로자를 훨씬 능가하는 성과를 보일 수도 있다. 이는 비영리기관에서 근무하는 임금근로자의 임금을 끌어내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Miyamori, 2012).

고령자 고용과 자원봉사는 생산적 고령화(Productive Aging)에 시사하는 바가 큰 중요한 정책 현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생산적'이란 단어는 노동과 관련된 경제적 생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용어를 만들어 낸 Butler and Gleason(1985)에 의하면, 생산적 고령화에는, 유급이든 무급이든 관계 없이,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에 기여하거나 그러한 생산능력을 개발하는 모든 유형의 활동이 포함된다. 학자들은 근무 외에 손자 양육, 아픈 친구나 친지 돌봄, 집안일, 교육훈련, 자원활동과 같은 활동들을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생산적 고령화 활동을 하고 있는 고령자는 큰 사회적 가치를 지닌다. 일본의 정책에서는 자원봉사를 노동과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보고, 고령 자원봉사자들이 사회보장제도 유지에 따르는 재정문제, 지난

---

20년간 지속되어 온 경제둔화 등의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주체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자원봉사는 실용적이거나 효율적이어서야 한다는 기대가 없기 때문에 생산성의 영역을 벗어나며 창의성, 상상력과 힘을 끊임없이 추구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없다. 게다가 고령자의 세계에서는 유급과 무급의 경계선이 여전히 모호하다. 필자가 앞서 언급한 두 곳의 고령자 자원봉사단체를 인터뷰했을 당시, 두 단체 모두 당초 자원봉사의 동기는 타인을 위한 선행을 베푸는 것이었다고 언급하였다. 유급 부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었다. 비록 유급 자원봉사자라는 용어의 유급 부분이 앞서 언급한 여러 이유로 인해 주목을 받더라도 그러한 초심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용어들을 정의하기보다는, 생산적 고령화의 진정한 본질을 실현하기 위해 소득 유지, 노동, 교육 및 장기요양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Chen, 2010).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경제적 문제를 걱정하는 고령자는 자원봉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으며(Seike, 2006),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원봉사 참여 가능성도 높다(Ma & Ono, 2013). 일본 국내(Chen et al., 2013) 및 국외(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2008)의 연구 결과, 어릴 때에 자원봉사를 경험하는 경우에 나이가 든 후에도 자원봉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다시 말해 고령 자원봉사의 경력은 노년에 접어들기 전에 제대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노년에 진입하기 전에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투자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노년에도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수명이 점차 늘어나면서, 고령 자원봉사자는 사회에 놀랄 만한 성과를 가져다 주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이는 다시 그들에게 건강과 자긍심을 안겨줄 것이다. **KLI**

- 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Office of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2008), *Still serving: Measuring the Eight-Year Impact of Americorps on Alumni*, Washington, DC: Author.
- Butler, R. N., and Gleason, H. P.(1985), *Productive Aging: Enhancing Vitality in Later Life*, New York: Springer.
- Cabinet Office(2012), “Section 4 Creating an environment in which elderly persons can thrive”, *Annual Report on the Aging Society*. [http://www8.cao.go.jp/kourei/whitepaper/w-2012/gaiyou/s1\\_4\\_1.html](http://www8.cao.go.jp/kourei/whitepaper/w-2012/gaiyou/s1_4_1.html) (Access August 24, 2015)
- \_\_\_\_\_(2013). “Section 3 Conciousness of baby boomer generation”, *Annual Report on the Aging Society*. [http://www8.cao.go.jp/kourei/whitepaper/w-2013/gaiyou/s1\\_3\\_1.html](http://www8.cao.go.jp/kourei/whitepaper/w-2013/gaiyou/s1_3_1.html)(Access August 24, 2015)
- \_\_\_\_\_(2015). “Registered NPOs as of June 30.” <http://www.npo-homepage.go.jp/> (Access August 24, 2015)
- Chen, L.(2010), “Productive ageing in Japan”, *China Journal of Social Work* 3(2-3), pp.165-180.
- Chen, L.(2013), “Senior volunteerism in Japan: A policy perspective”, *Ageing International* 38, pp.97-107.
- Chen, L., Tamiya, N., Kato, G., Yamaoka, Y., Ito, T., Matsuzawa, A., and Yamamoto, H. (2013), “Predictors of volunteerism: A study of older adults in Japan”,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Research* 3(6), pp.71-79.
- Council for Promotion of the Society of Mutual Assistance(2015), “Promoting the Society of Mutual Assistance: Aiming to build new “ties” (Summary).” [https://www.npo-homepage.go.jp/uploads/report33\\_8\\_youyaku\\_e.pdf](https://www.npo-homepage.go.jp/uploads/report33_8_youyaku_e.pdf) (Access August 24, 2015)
- International Longevity Center(2008), “Japan’s Silver Human Resources Centers: Undertaking an increasingly diverse range of work”. [http://longevity.ilcjapan.org/f\\_issues/0702.html](http://longevity.ilcjapan.org/f_issues/0702.html) (Accessed September 9, 2015)

- 
- Japan Institute of Labor(2004), “Shugyo keitai no tayoka to shakai rodo seisaku: Kojin gyomu itaku to NPO shugyo wo chushin to shite”, *Rodo seisaku kenkyu hokoku sho* 12. <http://www.jil.go.jp/institute/reports/2004/012.html> (Accessed September 9, 2015)
  - Japan National Council of Social Welfare(2012), “Shakai Fukushi Kyogikai kankeisha ni yoru hisachi shien no torikumi.” [http://www.shakyo.or.jp/saigai/torikumi\\_10.html](http://www.shakyo.or.jp/saigai/torikumi_10.html) (Access August 24, 2015)
  - Ma, X., and Ono, A.(2013), “Determining factors in middle-aged and older persons’ participation in volunteer activity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Japan Labor Review* 10(4), pp.90–119.
  -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2011), “H22 Shugyo keitai no tayoka ni kansuru sogo jittai chosa.” <http://www.mhlw.go.jp/toukei/itiran/roudou/koyou/keitai/10/index.html> (Accessed Sept 9, 2015)
  -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2014a), “Press Release: H26 “Konenreisha no koyo jyokyo” shukei kekka.” <http://www.mhlw.go.jp/file/04-Houdouhappyou-11703000-Shokugyouanteikyokukoureishougai koyoutaisakubu-Koureishakoyoutaisakuka/261031.pdf> (Access August 24, 2015)
  -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2014a), “Seikatsu hogo jukyusha jinin setaisu. Dai 17-kai Shakai hoshu shingikai seikatsu hogo kijyun bukai sanko shiryō.” <http://www.mhlw.go.jp/file/05-Shingikai-12601000-Seisakutoukatsukan-Sanjikanshitsu-Shakaihoshoutantou/051604.pdf> (Access August 24, 2015)
  - Miyamori, Y.(2012), “Yusho volunteer no teigi suru mondai ni kansuru kosatsu.” *Shagakuenronshu* 20, Tokyo: Waseda University, pp.30–45.
  - National Silver Human Resources Center Association(2010), “Kigyoto homon chosa kekka.” <http://www.zsjc.or.jp/> (Accessed September 9, 2015)
  - Seike, A.(ed.)(2006), *Age-free shakai*, Tokyo: Japan Productivity Center for Socio-Economic Development.